

사회조사방법론

연구 주제의 설정

김현우, PhD¹

¹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March 19, 2025



진행 순서

- 1 좋은 연구 주제
- 2 사회학 연구의 기여
- 3 연구 주제 설정의 팁
- 4 실제 연구 사례

좋은 연구 주제

좋은 연구 주제

“컵 안에 물을 많이 따르면 자연스럽게 물은 넘쳐 흐른다.”

- 연구 주제(research topic) 선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 평소부터 연구 주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 많은 서적과 논문을 찾아 읽고, 남들과도 연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 사회학도의 눈으로 일상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훈련이 된다.
- 아쉽지만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러다보니 격차도 벌어진다.
나는 연구 주제 가뭄으로 고통받는데, 어떤 이에게는 좋은 연구 주제가 넘쳐난다.



좋은 연구 주제

그러면 어떻게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사회학도로서 품고 있는 생각, 신념, 흥미, 관심분야가 있다면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자.
- 삶 속에서의 경험, 사색, 토론, 독서, 수업 등 경험을 통해 점차 문제의식을 확대·집중시켜 나간다.
- 평소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에 걸맞는 주제를 선택하자. 그래야 조사연구가 즐겁다!
- 물론 종종 좋은 연구 주제는 타인(e.g., 지도교수)으로부터 오기도 한다.



좋은 연구 주제

최초의 연구 주제에서 멈추어선 안된다.

- 고민없이 나온 ‘첫번째’ 연구 주제는 대부분 낯것 그대로의 상태이기 마련이다. 당연히 아직 유치하며 사색의 깊이가 없다.
- 이 주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진 연구 주제는 아무래도 티가 날 수 밖에 없다.
- 연구 주제와 직접 관련한 책을 읽거나 다른 광범위한 분야의 책(e.g., Giddens의 <현대사회학>)을 읽으면서 생겨나는 단상, 질문, 토론거리 등은 그때그때 메모를 남겨야 한다.
- 책 귀퉁이에 적어놓거나 메모장을 사용해도 좋고 휴대폰 앱을 사용해도 좋다. 포스트잇도 쓰자. 이것들을 반복하다보면 좋은 연구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 연구 주제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여 좋은 연구 주제에 도달해야 한다!



좋은 연구 주제

- 연구는 작게 시작해서 크게 끝낸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 크게 시작해서 작게 끝내는 용두사미식 연구야말로 최악이다. 감당할 수 없이 큰 연구 주제를 붙잡으면 종종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 작은 연구 주제를 하나 붙잡고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시종일관 이 연구 주제에 관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는 과정을 통해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눈덩이가 굴러가듯 저절로 연구 주제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게 된다.
-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주제를 하나의 연구에서 다루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하자!



좋은 연구 주제

좋은 연구 주제는 소극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첫째, 연구 윤리에 위반되거나 연구자의 신변에 위협을 수반하는 주제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 가령 범죄 집단에 관한 **현장조사(field study)** 같은 방법론은 피해야 한다.
- Sudhir Venkatesh의 <괴짜사회학(Gang Leader for a Day)> 같은 책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무척 흥미롭지만 이런 연구는 절대 추천할 수 없다.
- 애시당초 오늘날 기준에서 이런 연구는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므로 (성공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도) 자칫하면 큰 불이익을 받는다.



좋은 연구 주제

- 둘째, 연구 주제가 정말로 실행 가능한가를 꼼꼼이 따져야 한다. 자료(data)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가령 “교도소 수감 3년 미만 재소자들의 폭력행동”와 같은 주제는 좀 피하는 편이 좋다.
- 기존 자료가 확실히 있는 경우라면 팬츠를 수도 있다!
- 유사한 맥락에서 연구 주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추상적인 것은 안된다. 지나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주제도 곤란하다.
- 가령 “자본주의 세계체제 속 금융 위기와 종교-민족주의적 대응, 1500-2020” 같은 주제는 곤란하다.



좋은 연구 주제

- 셋째, 연구 주제의 깊이가 연구자의 능력을 지나치게 뛰어넘는지 판단해야 한다.
- (잘 모르는데) 고도의 수리모형을 세우고 이를 **시뮬레이션(simulation)**으로 테스트해보겠다는 등의 계획을 세워선 안된다.
- 그러나 배운 수준에서 아주 살짝 조금 더 어려울 것 같다 정도라면 괜찮다!



좋은 연구 주제

좋은 연구 주제는 적극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첫째, 연구 주제가 참신하면 그건 그 자체로 좋다.
-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연구 주제나 선행 연구에서 만족스러운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 주제라면 더욱 좋다.
- 다만 그런 연구 주제를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 설령 찾았더라도 양적 연구를 수행하기엔 예산과 시간의 소모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 가령 2024년에는 두 학생이 농인의 수어(=수화) 학습과 농인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다른 학생들은 광역지자체별 미세먼지 수준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설령 참신하지 않은 주제라도 좋다. 평이한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조명하며 깊게 파들어 간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좋은 연구 주제

- 둘째, 추상적인 연구 주제를 경험적으로 구체화시켜야 한다.
- 사회학적 연구는 (물적 대상보다는) 모호하거나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애매한 사회 현상을 종종 다룬다.
- 그런데 때로는 연구하려는 현상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유명한’ 개념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 가령 소외(alienation), 상품화(commodification),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문화적 재생산(cultural reproduction), 민족 정체성(national identity) 등 어려운 말을 내뱉는 것에 그친다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Why?).



좋은 연구 주제

- 일단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회 현상을 (개념 뒤로 도피하지 않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다!
- 만약 어떤 개념을 동원하여 그 대상을 설명한다면 (1) 그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2) 왜 특정 대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유까지도 설명해야 한다.
- 여러분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골라야 한다.
- 가령 K팝 아이돌 의상과 성 상품화라는 주제를 골랐다면, 어떤 경험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
- 교복을 입은 아이돌 무대 사진을 제출한다면 이것은 어떤 주장에 관한 경험적 증거가 되는가?
- 아주 선명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개념일수록 주장과 근거가 불일치하기 쉽다.



좋은 연구 주제

- 셋째, 기여점이 있는 연구 주제가 좋다.
- 이론적인 기여를 고려하자: “이 연구 주제를 탐구함으로써 이 분야의 학문 발전에 얼마나 공헌할 것인가?”
- 실용적인 기여도 고려하자: “이 연구 주제를 조사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 다만 어떤 연구 주제가 이론과 실용에 공헌하는가 하는 것은 (경험이 축적되기 전에는) 미리 알기 어렵다.
- 게다가 자신만의 자유로운 연구 가능성을 미리 옅죄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사회학 연구의 기여

사회학 연구의 기여

사회학은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해왔다.

- 1896년 미국 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한(separated but equal) 원리”를 내세웠다.
- 이 판례에는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와 인종주의적 편견을 갖고 있었던 William Graham Sumner와 같은 사회학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그 뒤, 1950년대에 이 원리가 폐기되었을 때도 또다시 사회학자들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 1960년대 James Coleman이 다시 인종 통합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큰 반향이 있었다.



William Graham Sumner



James Cole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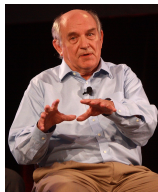


사회학 연구의 기여

- Richard J. Herrnstein와 Charles Murray가 <벨 커브(The Bell Curve)>에서 흑인의 지적 열등함이 미국에서 사회적 계층 분리의 이유라고 주장했을 때 큰 논란이 있었다.
- 수많은 사회학자들(Claude S. Fischer, Michael Hout, Ann Swidler, Kim Voss, Christopher Winship 등)은 자신의 사회계층과 불평등 및 사회조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논쟁에 직접 뛰어들었다.



Richard J. Herrnstein



Charles Murray



사회학 연구의 기여

- 소셜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으로 유명한 사회학자인 Edward Laumann과 그 동료들은 미 국립보건원(NIH)에 성행위의 사회적 연결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기금을 신청하였다.
- 보수주의 미 의회의원들은 이런 연구가 동성애와 좌익 공산주의를 전파하려는 음모라고 보아 반격을 가했다.
- 결국 Laumann과 동료들은 NIH에서 기금을 얻지 못했고 다른 사설 재단에서 지원을 받았고 <성행위의 사회조직(The Social Organization of Sexuality)>을 출판하였다.



Edward Laumann



사회학 연구의 기여

좋은 사회학 연구 주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별(star)은 인간이 관찰하더라도 신경쓰지 않는다. 하지만 누가 당신을 관찰한다고 생각해보라.
- 관찰 대상은 사회조사를 위한 관찰과 개입에 의해 종종 영향받는다. 이를 **호손 효과(Hawthorne effect)**라고 부른다.
- 사회학적 연구는 그 자체로서 과학적 연구일 뿐 아니라, 사회변동의 동인이 되기도 한다.
-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조사를 수행한다면 (규모가 작을수는 있어도) 분명히 사회변동의 한 원인이 된다.
- 여러분이 수행하는 연구 주제를 남들에게 밝혔을 때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 생각해보자. 성찰(reflection)은 성공적인 조사연구의 필수적인 과정이다!



사회학 연구의 기여

나의 연구는 더 넓은 세상과의 대화이기도 하다.

- 그야 자신의 관심사가 가장 중요하긴 하다.
- 하지만 넓게는 사회 뿐 아니라 좁게는 과학자 사회, 더 좁게는 자신의 연구를 직접적으로 읽어 줄 사람들의 관심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 타인이 연구 보고서를 읽고나서 “그래서 어찌라구(So what)? 내가 도대체 이 글을 왜 읽어야 하지?” 같은 식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을지 고민해야 한다.
- 학문 역시 사회적 활동이므로 연구 주제의 설정부터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사회학 연구의 기여

- 어떤 사회학자는 사회학자가 세상 속에 뛰어들어 대안을 제시하거나 조언을 내미는 것을 경계한다!
- 그러다보니 사회학은 종종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는 학문이라고 비난받는다(Why?).
- 하지만 공모전 응모나 정책대안 제시(e.g., KDI 영위킹그룹), 학술논문 출판, 신문/잡지/블로그 투고 등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력개발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유의미한 기여가 된다.
- 그러므로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주제를 능동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다. 나는 솔직히 사회학자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 주제 설정의 팁

연구 주제 설정의 팁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연구 주제를 발굴하는 좋은 노하우는 있을까?

- 첫번째, 기존 이론의 약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 개발하기
(e.g., Merton의 아노미 이론에서 Cloward & 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 두번째, 기존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 만들기
(e.g., 한국인의 인터넷 활용에 관한 기존 분석을 비교국가 분석으로 확대하기)
- 세번째, 기존 연구의 외연을 축소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 만들기
(e.g., 정치적 사건과 자살에 관한 기존의 비교국가 분석을 한국에 대하여 집중하기)



연구 주제 설정의 팁

- 네번째, 기존 이론들의 설명요인들을 혼합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 만들기
(e.g., 직업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심리학적 설명과 사회학적 설명을 결합하기)
- 다섯번째, 새로운 연구방법 적용이나 연구대상 변경하기
(e.g., 남성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를 여성청소년에 관한 양적 연구로 다시 적용해보기)
- 여섯번째, 기존 연구 재검증하기
(e.g., 20년 전 수행된 연구를 오늘날 재검증해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검토하기)



연구 주제 설정의 팁

-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주제 목록, 도서관에서 도서 목록 따위를 “보물사냥꾼의 눈빛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다.
- 가령 2023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학술제는 어떻게?

순번	주제
4	한국 택배노동자가 처한 노동불평등
5	초등교사 감정노동
6	청년고용정책의 한계점: 노동시장 이행기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7	프로 스포츠 노동의 숨겨진 이면: 국내 야구 선수의 노동 중심으로
8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보편성 확대에 대한 제언
9	미충족의료 영향요인 연구와 청주시 실질적 의료취약지 도출
10	여성출소자에 대한 복지의 필요성과 현 복지제도에 대한 논의
11	돌봄 영역에서 구현된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12	군대 내 인권교육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13	MZ세대로 보는 사회분할
14	드라마 <설강화>방영 중지 운동에 대한 구성주의적 분석 및 고찰: ‘프레임 정렬’과 ‘집합행동 프레임’을 중심으로
15	버추얼 캐릭터를 통한 젠더화된 여성성
16	능력주의와 지방대학 혐오



실제 연구 사례

실제 연구 사례

신문은 때로 영감을 얻기에 무척 좋은 소재를 제공한다.

- 코로나19와 사회적 신뢰 그리고 사회적 고립에 관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 이 [기사]를 읽고, 어떤 연구 주제에 관한 영감을 받았는지 생각해보자.
- 어떤 식으로 각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내세우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 이 연구에서 주제는 어떻게 설정되고 있나?

코로나19 시기 청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효과*

유현경 · 윤명숙**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인한 다층적 영역의 스트레스 증가와 사회적 고립의 심화가 청년층의 주요한 정신건강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시기 청년이 경험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J 시 정신건강실태조사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20세~39세에 해당하는 청년 473명을 대상으로 Stata/MP 17.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코로나 19시기 청년의 스트레스가 사회적 고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청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코로나 19시기 청년의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증가하고, 증가한 스마트폰 중독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층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사회복지 개입방안들을 제언하였다.

유현정·윤명숙. 2023. “코로나19 시기 청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효과.”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51(3): 132-156.

실제 연구 사례

● 이 주제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청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 관계에서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통제변수: 성별, 나이, 학력, 종교유무, 배우자유무, 가족수, 소득, 직업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서던 (연합뉴스, 2020) 2020년 11월에 수행된 'J시 정신건강실태 및 요구도 조사보고서'의 데이터 (2020)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1042명 중 청년에 해당하는 20세~39세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남 여성정책개발원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계획 (2010)'에 따라 청년의 연령범위를 20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였다. 주요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한 473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실제 연구 사례

- 이 연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신문 기사를 모티브로 삼아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아까 읽은 신문 기사와 이 연구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 (1) 연구 대상은 신문과는 달리 어떻게 좁혀졌나?
- (2) 신뢰보다는 고립으로 주제의 초점을 바꾼 것은 어떻게 생각되나?
- (3) 주제 설정에서 코로나19는 오로지 연구 맥락 혹은 배경일 뿐, 사실 일반적인 스트레스의 영향을 연구했다.
- (4)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하는 매커니즘(mechanism)으로 설명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나?

